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stigma) 비교분석

정 미 연¹⁾ · 소 희 영²⁾

서 론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1995년 약 100만 명에서(Jung, Kwon & Jung, 1995), 2000년 140만 명(Byun, 2000), 2005년에는 210만 명(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Bureau of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을 넘어서며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범주 또한 넓어지고 있는데, 이 중 지체장애인이 약 100만 명으로 장애 유형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와 각종 사고의 증가, 그리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생명이 구해졌으나 장애인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2006).

이들 장애인들은 신체적 불편과 함께 정신적, 사회적 불편도 함께 겪고 있었는데,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5.2%가 옥외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고, 그 원인으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13.9%로 네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의 장애 및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제도적 혹은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은 교육, 이동, 거주, 직업, 여가, 문화, 정보접근 등 사회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차별과 편견 및 불이익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4; Kim, 2006).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과 관련된 연구

들에서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편견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신체는 특히 사회적 관계와 다른 사람의 지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Cash, 1990; Shontz, 1990). 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의 상실이나 역할 제한은 장애인 스스로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 우울 등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Kim & Kim, 2005),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로 인한 낙인을 발생시킨다(Goffman, 1963). 낙인(stigma)이란 사전적으로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 또는 ‘다시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럽고 욕된 판정이나 평판을 이르는 말’(Pyojun-gugeo-dae sajeon, 1999)로, Lee와 Lee(2006)는 낙인은 사회적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특성(종족적 정체성, 꼬리표, 차별의 속성)을 지니며, 그 결과로 사회적 거부,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 결핍, 낮은 지위를 초래하는 사회적 구조”로 정의하였다.

통상 사회적 낙인의 대상자들은 그 사회의 다수에 의해서 비호의적으로 지각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적 처우를 받는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부정적 또는 동정적 대상으로 간주되기 쉬우며, 건전한 참여나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됨으로써 더욱 참여의 기회를 잃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Kwon, 2005).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장애인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평가절하로 나타나고 있다(Yoon, 2005) 이처럼 낙인은 비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저평가, 부정적인 고정관념, 꼬리표, 차별을 부여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부, 사회적 고립(Lee & Lee, 2006)을 가져올 수

주요어 : 지체장애인, 낙인

1) 충남대학교 대학원(교신저자 E-mail: myzoazoa@hanmail.net)

2)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8년 3월 28일 심사완료일: 2008년 5월 2일

있는 것으로, 이는 증가하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면서 장애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낙인은 지체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다행인 것은 낙인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신질환자(Han, Kim, & Lee, 2002; Lee, 2001), HIV 보균자(Charles, 2006) 등의 낙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장애인의 가장 큰 인구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Lee(2007)가 지체장애인에 대한 지각된 낙인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 낙인을 측정하는 도구조차 개발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또한 낙인이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낙인을 부여하고, 또 지체장애인이 부여된 낙인을 지각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들 낙인이 어느 정도이며, 지각하고 지각되는 낙인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지체장애에 대하여 지각하고 있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낙인을 파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간호학적 중재와 사회적 노력의 범위 및 수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연구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각(知覺)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의 과정에서 내외부적인 많은 요소들이 관여한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요소 중 공통된 요인을 알아보고, 이들 중 변화 가능한 낙인의 속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속성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여, 향후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태도개선, 궁극적으로 지체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대해 낙인지각 뿐 아니라 비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지각을 파악하여 비교하고, 이 낙인지각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대해 낙인지각을 비교하고, 각각의 낙인지각에 대한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과 기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지체장애인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지체장애인의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상태(불안, 우울 등)에 있지 않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지체장애인 292명, 비장애인 294명으로 총 586이다.

연구 도구

Lee(2007)의 지체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낙인지각 측정도구(PSS; Perceived Stigma Scale)로서, 전체 25문항으로 저평가(devaluation, 10문항), 접촉기피(avoidance, 6문항), 차별(discrimination, 9문항)의 3개 하부요인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 점수는 25점에서 150점의 분포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인지각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도구의 Cronbach $\alpha = .93$ 이었고, 영역별 신뢰도는 저평가 Cronbach $\alpha = .84$, 접촉기피 Cronbach $\alpha = .81$, 차별 Cronbach $\alpha = .87$ 이었다.

자료수집방법

2007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체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을 탐색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 설명 후 설문조사에 동의한 대전광역시 소재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조사하였다. 훈련된 연구보조원 4명과 함께 기관을 찾아가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지체장애인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292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된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을 할당(match)하여 2007년 8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지체장애인과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장애인을 편의추출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294부를 분석하였다.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집단 모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본 연구자와 훈련받은 간호학과 학부생 4명이 문항을 읽어주고 대상자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었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분석방법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지체장애인 군과 비장애인 군의 동질성 검사는 X^2 -test로 분석하였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관련 있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체장애인의 장애관련 특성, 비장애인의 장애인 관련 경

험을 밝히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적용하였다.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각된 낙인의 비교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수준은 p<.05로 정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표출 하였기에 일반화시키기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지체장애인에 대한 지각된 낙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각되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즉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려는 경향을 구분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지각된 낙인을 측정할 시 자신의 특정한 경험과 연관시켜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지체장애인 55.22세, 비장애인 53.82세였으며, 지체장애인들 중 남성이 62.7%, 여성이 37.3%였으며, 비장애인 또한 남성이 57.5%로 여성 42.5%보다 많았다. 결혼상태는 지체장애인의 73.2%, 비장애인의 71.9%가 기혼이었다. 종교는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기독교가 가장 많았다. 직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지체장애인에서 무직자가 많았으며, 경제상태 또한 지체장애인은 ‘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51.7%로 가장 많았고, 비장애인에서는 ‘중’이 54.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두 집단 간 직업의 유무, 경제상태에는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의 ‘중’정도인 대상자가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각 54.7%, 53.4%로 가장 많았다<Table 1>.

● 지체장애인의 장애 관련 특성
 지체장애인들의 장애와 관련된 특성의 결과는 <Table 2>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586)

Characteristics		Physically disabled	Non-disabled	Total	X ²	p
		(n=292)	(n=294)			
		N(%)	N(%)			
Age	19-39	40(13.7)	59(20.1)	99(16.9)	5.38	.068
	40-64	162(55.5)	140(47.6)	302(51.5)		
	≥65	90(30.8)	95(32.3)	185(31.6)		
Gender	Female	109(37.3)	125(42.5)	234(39.9)	1.64	.200
	Male	183(62.7)	169(57.5)	352(60.1)		
Marital status	Single	43(14.8)	39(13.4)	82(14.1)	3.50	.478
	Married	213(73.2)	210(71.9)	423(72.6)		
	Divorced	9(3.1)	6(2.1)	15(2.6)		
	Widowed	23(7.9)	35(12.0)	58(9.9)		
	Other	3(1.0)	2(0.7)	5(0.9)		
Religion	Buddhist	75(25.8)	88(30.3)	163(28.1)	6.95	.139
	Christian	114(39.2)	92(31.7)	206(35.5)		
	Catholic	25(8.6)	22(7.6)	47(8.1)		
	Atheist	67(23.0)	83(28.6)	150(25.8)		
	Other	10(3.4)	5(1.7)	15(2.6)		
Job	Full-time	47(16.2)	94(32.2)	141(24.2)	34.97	<.00
	Part-time	3(1.0)	12(4.1)	15(2.6)		
	Student	3(1.0)	11(3.8)	14(2.4)		
	None	237(81.7)	175(59.9)	412(70.8)		
Economic status	High	8(2.8)	6(2.0)	14(2.4)	17.85	<.00
	Middle	132(45.5)	185(62.9)	317(54.3)		
	Low	150(51.7)	103(35.0)	253(43.3)		
Educational level	Low	69(23.9)	65(22.1)	134(23.0)	.83	.662
	Middle	158(54.7)	157(53.4)	315(54.0)		
	High	62(21.5)	72(24.5)	134(23.0)		

<Table 2> Disability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ly disabled (N=292)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Percent
Grade of disability	Grade1	53	18.2
	Grade2	91	31.2
	Grade3	61	20.8
	Grade4	32	11.0
	Grade5	29	9.9
	Grade6	26	8.9
Type of disability	Limbs & Spine	198	67.8
	Brain	88	30.1
	Others	6	2.1
Impairment site	Upper limb	24	8.2
	Lower limb	105	36.0
	Upper & lower limb	139	47.6
	Trunk	24	8.2
Cause of disability	Congenital	14	4.8
	Accident	124	42.4
	Disease	154	52.7
Period after disability(year)*	≤10	166	56.8
	11-20	56	19.2
	≥21	63	21.6
Visibility of disability	Visible	203	69.5
	A little visible	40	13.7
	Invisible	49	16.8
Other disease	Yes	155	53.1
	No	137	46.9

* missing cases

<Table 3> Perceived stigma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ly disabled (N=292)

Characteristics	Category(n)	Perceived stigma M(SD)	Devaluation M(SD)	Avoidance M(SD)	Discrimination M(SD)
Gender	Male(183)	85.43(21.77)	38.95(9.11)	21.10(6.24)	28.54(9.12)
	Female(109)	86.81(23.27)	40.53(9.59)	21.31(6.77)	27.89(10.06)
	t(p)	-.51(.609)	-1.41(.161)	-.27(.791)	.57(.572)
Age	19-39(40)	79.67(21.41)	36.00(8.71)	19.67(5.89)	27.02(9.52)
	40-64(162)	87.02(22.00)	39.67(8.96)	21.40(6.24)	29.11(9.37)
	≥65(90)	86.79(23.04)	40.90(9.86)	21.44(6.95)	27.41(9.59)
	F(p)	1.85(.160)	3.95(.020)	1.27(.282)	1.35(.261)
Spouse*	Have(213)	84.37(21.93)	38.91(9.22)	20.77(6.25)	27.68(9.22)
	Don't have(75)	90.10(23.16)	41.20(9.51)	22.21(6.92)	29.97(9.95)
	t(p)	-2.25(.026)	-3.38(.001)	-1.60(.119)	-.78(.440)
Religion*	Have (214)	85.04(21.90)	39.18(9.11)	20.94(6.55)	27.83(9.34)
	Don't have(67)	89.09(21.69)	41.18(8.95)	22.04(5.60)	29.48(9.24)
	t(p)	-1.32(.187)	-1.58(.116)	-1.23(.219)	-1.27(.207)
Job*	Have(53)	82.19(22.07)	37.65(9.05)	20.33(5.62)	27.76(8.90)
	Don't have(23)	86.70(22.37)	39.96(9.35)	21.34(6.61)	28.37(9.62)
	t(p)	-1.33(.184)	-1.64(.103)	-1.03(.304)	-.42(.675)
Economic status*	High(8)	77.21(20.71)	32.19(8.85)	20.42(6.74)	27.25(8.15)
	Middle(132)	82.55(21.05)	38.07(8.41)	20.48(5.75)	27.11(9.18)
	Low(150)	89.04(22.74)	41.13(9.65)	21.73(6.88)	29.23(9.57)
	F(p)	3.69(.026)	6.62(.002)	1.39(.252)	1.85(.159)
Educational level*	Low(69)	91.24(22.89)	42.52(9.37)	22.62(6.89)	29.37(10.26)
	Middle(158)	85.61(22.11)	39.36(8.98)	21.10(6.26)	28.21(9.40)
	High(62)	81.16(20.40)	36.81(9.07)	19.81(5.82)	27.44(8.40)
	F(p)	3.50(.031)	6.52(.002)	3.24(.041)	.71(.491)

* missing cases

같다.

지체장애 급수는 2급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중증 장애인(1~3급)이 많았다. 지체장애 유형 중 뇌병변장애가 30.1%를 차지하였으며, 장애부위는 ‘상, 하지 모두’인 장애인이 47.6%로 가장 많았다. 장애 원인은 질병 52.7%와 사고 42.4%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장애발생 후 경과기간은 평균 14.75년이었다. 장애의 가시성에 대해서는 69.5%에서 자신의 장애가 겉으로 잘 드러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외에 다른 질병(동반질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53.1%이고 고혈압이 가장 많았다<Table 2>.

● 비장애인의 장애인 관련 경험

비장애인 중 장애인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2%,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21.1%,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친구 중 지체장애인이 있는 사람은 27.2%였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관련된 요인

-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지각된 낙인

지체장애인의 낙인과 성별, 종교, 직업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은 지체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하부영역 중 저평가의 영역에서만 차이가 있었으며 (F=3.95, p=0.020), 연령군 간의 낙인지각정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중년층과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지체장애인에 대하여 저평가하고 있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낙인의 정도가 낮았으며, 낙인의 하부영역에서는 저평가의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상태(F=3.69, p=.026)와 교육정도(F=3.50, p=0.031)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지각 또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상태와 교육 정도가 낮은 경우 낙인정도가 높았고, 낙인의 하부영역에서는 경제상태에 따라 저평가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고, 교육정도는 저평가와 접촉기피의 영역에 따라 낙인의 차이가 있었다 <Table 3>.

● 비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인지각
비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는 나이, 성별, 배우자유무, 직업의 유무, 경제상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지각은 차이가 없었다<Table 4>.

연령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나이가 적은 경우 저평가(F=3.05, p=.049)와 접촉기피(F=3.69, p=.026)의 하부영역에서 낙인지각의 정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면 남성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t=2.69, p=.008), 하부영역에서는 저평가를 제외한 접촉 기피(t=2.43, p=.016)와 차별(t=3.86, p<.001)의 영역에서 남성이 지각하는 낙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낙인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2.17, p=.031), 특히 낙인의 하부영역 중 접촉기피(t=-2.23, p=.026), 차별(t=-2.57, p=.011)의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비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체장애인에 대한

<Table 4> Perceived stigma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on-disabled and perceived stigma according to the disability related experiences of the non-disabled (N=294)

Characteristics	Category(n)	Perceived stigma M(SD)	Devaluation M(SD)	Avoidance M(SD)	Discrimination M(SD)
Age	19-39 (59)	77.24(18.25)	35.03(7.84)	17.72(4.95)	24.48(7.44)
	40-64(140)	78.63(20.51)	36.15(8.00)	18.11(5.81)	24.37(8.51)
	>64(95)	72.43(18.13)	33.60(7.30)	16.19(5.04)	22.62(7.72)
	F(p)	3.00(.051)	3.05(.049)	3.69(.026)	1.57(.210)
Gender	Male(169)	78.94(18.48)	35.49(7.50)	18.09(5.06)	25.35(7.71)
	Female(125)	72.84(20.26)	34.57(8.21)	16.50(5.85)	21.76(8.12)
	t(p)	2.69(.008)	1.00(.318)	2.43(.016)	3.86(<.001)
Spouse*	Have(210)	74.85(20.01)	34.79(8.10)	16.97(5.52)	23.08(8.14)
	Don't have(80)	80.38(17.54)	36.02(6.97)	18.57(5.22)	25.78(7.65)
	t(p)	-2.17(.031)	-1.19(.234)	-2.23(.026)	-2.57(.011)
Job*	have(117)	79.64(18.22)	36.09(7.37)	18.33(5.09)	25.21(7.54)
	Don't have(175)	74.23(20.03)	34.43(8.04)	16.83(5.63)	22.95(8.32)
	t(p)	2.34(.020)	1.78(.076)	2.31(.022)	2.35(.019)
Economic status	High(6)	55.16(7.60)	24.83(3.18)	13.33(5.04)	17.00(4.14)
	Middle(185)	75.68(18.60)	35.21(7.52)	17.21(5.36)	23.26(7.69)
	Low(103)	78.77(20.68)	35.51(8.12)	18.01(5.57)	25.24(8.61)
	F(p)	4.57(.011)	5.51(.004)	2.46(.088)	4.29(.015)
Educational level	Low(65)	75.53(21.84)	34.44(8.33)	17.35(6.03)	23.72(8.75)
	Middle(157)	77.73(18.96)	35.66(7.79)	17.78(5.43)	24.28(8.03)
	High(72)	74.08(18.24)	34.49(7.34)	16.66(4.95)	22.93(7.53)
	F(p)	.94(.393)	.85(.429)	1.05(.352)	.70(.500)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disabled	Yes(77)	73.62(19.63)	34.55(8.05)	16.52(5.36)	22.55(8.16)
	No(217)	77.31(19.35)	35.30(7.73)	17.73(5.47)	24.28(8.01)
	t(p)	1.43(.153)	.72(.475)	1.68(.094)	1.62(.106)
Volunteer service	Yes(62)	77.10(17.85)	36.29(7.78)	17.18(5.36)	23.63(7.26)
	No(232)	76.15(19.90)	34.78(7.80)	17.47(5.49)	23.88(8.29)
	t(p)	.34(.731)	1.35(.179)	-.38(.706)	-.21(.831)
Disabled in family	Yes(80)	76.32(20.60)	35.46(8.19)	17.36(6.04)	23.49(8.24)
	No(214)	76.36(19.06)	34.97(7.67)	17.43(5.24)	23.95(8.02)
	t(p)	-.02(.987)	.49(.628)	-1.10(.268)	-.44(.661)

* missing cases

낙인의 정도가 더 높았고($t=2.34, p=.020$), 낙인의 하부영역에서는 저평가를 제외한 접촉기피($t=2.31, p=.022$), 차별($t=2.35, p=.019$)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경제상태에 따라서도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낙인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57, p=.011$).

● 비장애인의 장애인 관련 경험에 따른 낙인지각

비장애인의 장애 및 장애인 관련 경험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접한 경험’,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활동 경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친구 중 지체장애인의 유무’ 세 가지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과 같이 비장애인들의 장애 및 장애인 관련 경험에 따른 낙인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지체장애인의 장애인 관련 특성에 따른 낙인지각

지체장애인의 장애인 관련 특성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지각의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지체장애 급수, 중등도에 따른 낙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장애발생 후 기간에 따른 낙인지각의 정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가시성과 낙인의 경향 또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장애의 원인에 따라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중도장애인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동반질병-장애 유발 원인이 아난의 유무에 따라서 지체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42, p=.001$), 동반질병이 있는 경우 낙인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평가, 접촉기피, 차별의 모든 하부영역에서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반질병이 있는 155명의 지체장애인 중 124명이 동반질병의 종류를 기록하였으며 동반질병을 1개 가진 사람이 87명, 2개 이

<Table 5> Perceived stigma according to the disability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ly disabled (N=292)

Characteristics	Category(n)	Perceived stigma M(SD)	Devaluation M(SD)	Avoidance M(SD)	Discrimination M(SD)
Grade of disability	1(53)	89.05(22.48)	40.37(9.20)	21.66(6.42)	30.22(10.05)
	2(91)	85.79(21.53)	39.98(8.95)	21.09(6.08)	28.09(9.12)
	3(60)	87.64(20.90)	40.11(9.12)	21.62(5.81)	28.73(8.39)
	4(32)	85.08(26.75)	38.79(9.54)	21.09(8.18)	28.25(11.64)
	5(29)	78.68(22.97)	36.48(10.30)	19.66(6.61)	24.82(8.46)
	6(26)	85.72(21.71)	39.25(10.01)	21.26(6.86)	28.52(9.56)
	F(p)		.90(.483)	.84(.523)	.44(.824)
Severity of disability	Serious(144)	86.99(21.87)	40.12(9.01)	21.30(6.19)	28.87(9.50)
	Moderate(92)	86.75(22.99)	39.65(9.24)	21.43(6.69)	28.56(9.58)
	Mild(55)	82.01(22.46)	37.79(10.17)	20.42(6.72)	26.57(9.10)
	F(p)		1.07(.344)	1.26(.285)	.48(.621)
Period after disability	≤10(166)	86.64(22.74)	40.15(9.61)	21.28(6.87)	28.27(9.43)
	11-20(56)	86.55(17.61)	39.51(7.40)	21.25(4.96)	28.57(7.76)
	≥21(63)	82.19(25.12)	37.70(10.16)	20.58(6.61)	27.20(10.82)
	F(p)		.96(.385)	1.57(.211)	.28(.755)
Visibility of disability	Visible(203)	86.93(22.12)	40.30(9.21)	21.41(6.37)	28.37(9.43)
	A little visible(39)	82.91(24.47)	36.90(9.59)	20.59(7.16)	28.32(9.97)
	Invisible(49)	84.85(21.33)	38.61(9.26)	20.89(5.95)	28.25(9.33)
	F(p)		.62(.541)	2.50(.084)	.34(.711)
Comorbidity	Have(136)	90.50(23.07)	41.68(9.25)	22.25(6.76)	29.63(9.92)
	Don't have(155)	81.72(20.73)	37.59(8.93)	20.17(5.96)	27.03(8.86)
	t(p)		-3.42(.001)	-3.83(<.001)	-2.78(.006)
Type of disability	Limbs & spine(198)	83.67(22.96)	38.10(9.42)	20.71(6.61)	27.89(9.73)
	Brain(88)	90.95(20.15)	42.57(8.42)	22.26(5.95)	29.27(8.84)
	t(p)		2.57(.011)	3.82(<.001)	1.89(.060)
Impairment site	Upper limb(24)	91.63(19.58)	40.84(7.96)	22.88(5.22)	31.20(9.21)
	Lower limb(105)	80.95(22.33)	38.16(9.08)	19.81(6.44)	26.11(9.36)
	Upper & lower limb(139)	88.25(22.03)	40.25(9.61)	21.82(6.43)	29.21(9.24)
	Trunk(24)	88.78(23.72)	40.24(9.57)	21.70(6.77)	29.73(10.18)
	F(p)		2.95(.033)	1.24(.294)	2.72(.045)
Cause of disability	Congenital(14)	89.94(22.10)	39.14(8.53)	21.57(6.19)	32.29(10.00)
	Non-congenital(275)	85.74(22.36)	39.53(9.39)	21.19(6.44)	28.09(9.40)
	t(p)		.69(.493)	-.15(.877)	.22(.829)

상을 가진 사람이 37명이었으며, 동반질병의 종류는 고혈압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 관절염 등이 있었다.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낙인경향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인이 지체장애인보다 낙인지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7, p=.011$). 하부영역에서는 접촉 기피와 차별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저평가 ($p=3.82, p<.001$)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부위에 따른 각 집단간의 낙인지각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F=2.95, p=.033$), 하부영역에서는 저평가의 영역을 제외한 접촉기피($F=2.72, p=.045$), 차별($F=3.31, p=.020$)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 비교

지체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대해 지각하는 낙인의 경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7.11, p<.001$), 저평가($t=-6.26, p<.001$), 접촉 기피($t=-7.63, p<.001$), 차별($t=-6.15, p<.001$)의 모든 영역에서 지체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6>.

논 의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각되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낙인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의 특성과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관련된 연구대상자의 특성

● 일반적 특성과 낙인지각

지체장애인의 지각된 낙인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비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에서는 남성인 경우 낙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인의 하부영역에

서는 저평가를 제외한 접촉기피, 차별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Lee(2007)의 연구에서도 지체장애인의 낙인은 성별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Choi(2003)의 화상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낙인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지체장애인들의 평균연령은 55.22세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층이 높은 경우 저평가의 영역에서 낙인지각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Lee(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낙인을 높게 지각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Lee(2007)의 연구에서는 평균연령 48.9세로 본 연구 대상자들보다 평균연령이 낮음에서 오는 차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의 지체장애인의 낙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대체로 많이 연구되어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살펴보면 Jung(2004), Han 등(2002), Kwak(2000)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낙인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Charles(2006)의 HIV 관련 낙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낙인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장애인에서는 연령이 낮은 경우 낙인의 하부영역인 저평가와 접촉기피의 영역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배우자 유무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특성으로, 비장애인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2007)의 연구에서 미혼이나 이혼을 한 사람이 낙인을 더 많이 지각했던 것과 같은 결과로,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화상으로 인한 장애인(Choi, 2003)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종교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이 지각한 낙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Choi(2003)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화상장애인의 낙인이 종교가 있는 경우에 비해 높다고 하였으며, Suk(2004)의 중도지체장애인의 종교적 특성과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반대로 종교(기독교)적 특성(종교성과 종교적 동기)이 중도장애의 장애수용 정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Choi(2003)의

<Table 6> Mean comparisons in perceived stigma total, devaluation, avoidance and discrimination between physically disabled and non-disabled

	Physically disabled (n=292)	Non-disabled (n=261)	t	p
Perceived stigma	88.93±23.20	76.35±19.46	-7.11	<.001
Devaluation	39.54± 9.31	35.10± 7.81	-6.26	<.001
Avoidance	21.18± 6.43	17.41± 5.46	-7.63	<.001
Discrimination	28.30± 9.47	23.83± 8.07	-6.15	<.001

연구 등에서는 종교적 활동 정도를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지 종교가 있는지에 대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직업은 지체장애인에서 무직과 학생을 포함하여 82.7%가 직장이 없었으며, 비장애인에서는 63.7%가 직장이 없었다. 직업 유무에 따른 낙인은 지체장애인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Lee(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비장애인에서 직업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정도가 차이가 있어, 직업이 없는 군이 직업이 있는 군에 비해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이 있는 경우 사회생활을 통해 지체장애인들을 접할 기회가 늘어 낙인지각 수준이 낮은 것이라 볼 수 있겠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서 경제상태가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0.4%, 중상층 5.9%에 불과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본인의 경제상태가 높다고 대답한 지체장애인은 8명(2.8%)로 낮았으며, 경제상태가 낮은 사람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인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경제적 상태가 낮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지체장애인에 대하여 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은 차별의 영역에서도 낮은 경제상태에 있는 사람의 낙인이 높았다. 이는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장애인 중에서 '차별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5%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과 유사하며, Choi(2003)의 회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낙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무직일수록 낙인이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교육정도는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고, 이는 Lee(200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고졸 36.0%로 가장 많음)과 유사하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Korea National Statistic Office, 2005)에서는 전국 20대~70대에서 고졸인구가 27.7%, 대전광역시의 24.1%로 본 연구에서 보다 낮았다. 이는 대상자 선정시 편의 표출하였기 때문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자료를 수집한 본 연구, Lee(2007), Hyun(2007)의 지체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에서도 고졸이 37%로,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 학력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지각정도는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군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지체장애인군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해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지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낙인의 하부영역에서는 차별의 영역을 제외한 저평가와 접촉기피의 영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비록 지체장애인의 낙인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Sung(1996)의 정신질환자의 낙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낙인 지각 정도가 높다고 하여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Choi(2003)의 회상장애인의 낙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른 낙인은 차이가 없었고, Lee(2007)의 지체장애인의 낙인도구 개발시 측정된 교육정도에 따른 낙인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반면 비장애인의 낙인지각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교육수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Yang과 Lim(2004)의 연구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Yoo(2007)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합교육)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보다 교육이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비장애인의 장애인 관련 경험과 낙인지각

Kim(2002)의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대상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가 있는 변수로 '친구 중 장애인 유무', '자원봉사 경험', '장애인 접촉경험'이 유의한 인구학적 특성이었고, 사회적 거리감 극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Lee(2001)의 연구에서도 '낙인을 줄이려는 적극적 노력', '전문가와 상담', '대중매체의 긍정적 보도', '치료의 진보', '가족 내 지지'가 낙인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비장애인의 장애인 관련 특성을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접한 경험의 유무', '장애인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친구 중 지체장애인 유무'의 3가지로 보았다.

본 연구대상자 중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6.2% 이었으며, 교육, 홍보에 대한 경험의 유무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Yang과 Lim(2004)와 Yoo(200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 후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교육의 주제와 참여횟수, 시간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인 비장애인의 장애인 관련 경험의 두 번째 특성인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1% 였으며, Kim(2002)의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인 연구에서 92.5%(333명)가 경험이 있었던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평균 연령도 53.8세로 Kim(2002)연구에

서 대학교 2-3학년이 76.4%로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비장애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자원봉사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경험의 유무에 따른 비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2002)연구에서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의 자원봉사경험의 유무에 따라 지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자체가 아니라 자원봉사의 동기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 지체장애인이 있는 대상자는 27.2%였으며, 위의 두 가지 특성과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비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지각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offman(1963)이 일반적으로 낙인찍힌 자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 낙인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다른 결과이지만, Lee(2001)의 연구에서도 일반인,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가족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지각정도를 비교한 결과 집단 간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지각을 비교한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현대화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수가 적어지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졌다는 데에서 일부 설명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체장애인으로 장애인실태조사(2005년) 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인에 비해 비교적 주위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체장애인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지각하는 낙인에서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체장애인의 장애관련 특성과 낙인지각

본 연구에 참여한 지체장애의 장애등급은 2급, 3급, 1급 순으로 많아 중증장애인이 많았다. 이는 장애인실태조사(2005)에서 등록된 지체장애인 중 5급이 2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급 25.7%로 경증의 지체장애인이 절반 정도 차지하였던 것과 다른 분포였으며, 이는 본 연구 자료의 대부분이 장애인체육시설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실태조사의 재가장애인의 자료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장애의 중증도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Lee(2007)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도구 개발연구에서도 장애등급에 따른 낙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후 경과기간과 지체장애인의 지각된 낙인에서 상관성이 없었다. Choi(2003)의 연구에서도 화상장애인의 화상 발생 후 경과기간에 따른 사회적 낙인은 차이가 없었으며, Han 등(2002)의 연구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질병의 이환기간과 정신장애인의 낙인에는 관계가 없었다.

장애의 표식이 잘 드러나는지(가시성)에 대한 결과는 69.5%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라고 응답하여, Lee(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여기에서 장애의 가시성과 낙인의 경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차별, 저평가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Choi(2003)의 화상 장애인의 낙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화상의 흉터가 있는 경우, 범위가 큰 경우, 안면에 흉터가 있는 경우에 낙인의 정도가 더 높아 Goffman(1963)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시성이 높은 집단의 낙인정도가 가시성이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화상의 경우 신체의 변형을 가져 오지만, 지체장애인의 경우 신체의 변형보다는 기능의 변화에 따른 가시성이라는 데에서 일부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지만, Lee(2007)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다르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체장애인 중 현재 장애외의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53.0%이었으며, 이러한 동반질환에 따라서 낙인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고, 동반질환의 유무와 낙인의 정도는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 이 중 고혈압이 24.6%를 차지하여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10세 이상에게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고혈압 유병률 27.9%보다 조금 낮은 정도로, 뇌졸중으로 장애를 진단받은 지체장애인중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출현율이 2.2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인이 0.64%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이 67.8%, 뇌병변장애인이 30.1%를 차지하였고, Lee(2007)의 연구에서도 각각 66.5%와 20.5%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 지체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88명을 포함한 것은 2000년 1월 1일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기 전까지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의 다섯 가지 범주만 있어 현재의 뇌병변장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였다. 본 연구에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낙인지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57, p=.011$)가 있었으며, 지체장애인이 뇌병변장애인에 비해 낙인지각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에서 장애의 부위는 '상하지 모두'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선행연구(Lee, 2007)의 48.3%와 유사하였으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하지의 장애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본 연구와 Lee(2007)의 연구 모두 연구에 참여한 지체장애인 중 상하지 모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의 부위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살펴보면, Lee(2007)의 연구에서는 장애 부위와 낙인의 정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F=2.95, p=.033$), 하부영역에서는 저평가의 영역을 제외한 접촉기피($F=2.72, p=.045$), 차별($F=3.31, p=.020$)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낙인의 정도는 상지에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에서 낙인지각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나, 이들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장애의 부위는 일상생활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Byun(1998)에 의하면 일상생활능력이나 장애의 정도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장애의 부위는 낙인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애인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애는 후천적 원인(89.0%)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고(36.6%)보다 질환(52.4%)이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장애의 원인이 질병인 경우가 52.7%, 사고가 41.4%, 선천적인 경우가 4.8%로 선천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인의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장애의 원인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수가 선천적 장애인이 14명밖에 되지 않아 더 큰 표본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낙인지각 비교

비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낙인을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료수집 도구의 중간점수보다 지체장애인은 약간 높았으며, 비장애인은 약간 낮았다. 이전에는 지체장애인의 낙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적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변화 또는 비교가 어려우나, 서울 경기 지역에서 조사한 Lee(2007)의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낙인 점수가 95.15 ± 21.91 점으로 본 연구보다 낙인의 정도가 높았다. 낙인의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비장애인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저평가 경향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저평가 영역의 중간점수는 35.0점으로 지체장애인에서 이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사람들이 지체장애인에 대해 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기피 영역에서 지체장애인이(21.18 ± 6.43) 비장애인(7.41 ± 5.46)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 영역의 중간점수는 21.0점으로 지체장애인은 중간점수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장애인은 중간점수보다 낮았다. 차별 영역에서도 지체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 영역의 중간점수는 30.0점으로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보다 낮았다.

Lee(2001)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가족, 이렇게 네 집단의 낙인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p<.056$)는 없었지만, 네 집단 모두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집단이 정신장애인에 대

해 표면적으로는 지각하는 낙인의 정도가 높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쪽이 컸으나, '나'와 관련되어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문항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중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의 일례는 님비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Lee(2007)의 지체장애인을 위한 지각된 낙인측정도구에서는 '나는 지체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로 질문할 경우 자신의 상태를 지나치게 표출하는 것이므로 응답자가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지체장애인이하다고 생각한다.'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낙인이 사회적으로 밖에서 나에게 부여하여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므로 객관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개인의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신념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응답자의 솔직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님비현상과 같은 이중적 태도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비교하고, 이 낙인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 중 지체장애인은 대전광역시에서 소재한 여러 장애인 시설에 방문한 만 19세 이상의 등록된 지체장애인 292명이었다. 비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294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연구도구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지각된 낙인 측정도구와 일반적 특성 및 장애, 장애인 관련 특성을 묻는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비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지체장애인에 대한 지각된 낙인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낙인 관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장애 관련 특성은 지체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배우자가 없는 군, 경제상태, 교육정도가 낮은 경우 낙인의 경향이 높았으며, 낙인의 하부영역 중 지체장애인에 대한 저평가에 차이를 보인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위의 특성을 포함하여 연령이 높은 경우 높았다. 접촉기피 영역에서는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만이 나타났다.
- 비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남성, 배우자가 없는 군, 직업이 있는 군, 경제상태가 낮은 군에서 높게 지각하였다. 낙인의 하부영역 중 차별의 영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고, 저평가 영역에서는 젊은 연령 군, 경제상태가 낮은 경우 지체장애인을 더 저평가하는 경

향을 보였고, 접촉기피는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직업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 지체장애인의 장애인 관련 특성 중 지체장애인에 대한 지각된 낙인에 차이를 보인 특성은 동반질병, 장애의 유형, 장애부위였으며, 질병이 없는 경우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낮았고, 이 특성의 낙인의 하부영역인 저평가, 접촉기피, 차별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장애부위에 따른 낙인에서는 상지에 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저평가를 제외한 접촉기피, 차별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 홍보경험의 유무, 장애인 대상의 자원봉사 경험, 가족이나 친지 중 장애인이 여부에 따른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지각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경험, 학습, 체험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홍보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으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 가능한 태도의 속성은 이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중요한 요인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에 대한 낙인감소를 위한 간호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간호중재 또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제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선정 시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등록되거나 방문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재가지체장애인, 입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 등 다양한 영역에 있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 비장애인의 지체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이중적 태도를 구별해낼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낙인을 모두 줄일 수 있는 개인적, 대인관계적, 사회적 수준에서의 간호중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References

- Byun, S. (199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ocial integration of the disabled : focus on the physically disabl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Byun, Y. (2000). 2000' the disabled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and policy suggestion. *Health Welfare Policy Forum*, 46, 16-26.
- Cash, T. F. (1990). *The psychology of physical appearance: Aesthetic, attributes, and images*. In T. F. Cash and T. Pruzinsky (Eds.).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Charles, A. Emilet. (2006) A comparison of HIV stigma and disclosure patterns between older and younger adults living with HIV/AIDS. *AIDS Patients Care STDs*, 20(5), 350-358.
- Choi, M. (2003). *Influences of social stigma in social integration of the disabled with severe burns-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 Han, K., Kim, S., & Lee, M. (2002). Factors affecting stigma of schizophrenic patien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1(6), 1185-1196.
- Hyun, D.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system on social integration in physical disabil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Jung, K., Kwon, S., & Jung, W. (1995). *The results of the disabled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and policy issu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 GPO
- Jung, S. (2004). *A study on the perceived stigma of the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2002). A study on social distance on people with disability. *Ment Health & Soc Work*, 14, 99-126.
- Kim, K., & Kim, O. (2005). Influencing factors on HRQOL of physically disabled persons. *J Korean Acad Nurs*, 35(3), 478-486.
- Kim, K. (2006). A study of student attitudes toward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region Busan and Gyeongnam. *J Special Edu*, 13(1), 27-48.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Seoul : GPO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4). *Plans of eliminating 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s social integration*. Seoul : GPO
- Korea National Statistic Office.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Daejeon : GPO.
- Kwak, U. (2000). *A study on the perceived stigma of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 thesis. Chongju University. Chongju.
- Kwon, S. (2005).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Seoul : Chongmook Press.
- Lee, I., & Lee, E. (2006). Concept analysis of stigma. *J Rhumatol Health*, 13(1), 53-66.
- Lee, I. (2007). *Development of perceived stigma scale (PSS) for the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K. (2001). *A study on the stigma abou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Bureau of Policy for Persons

- with Disabilities. (2006). *A survey of the disabled*. Seoul : GPO
- Shontz, F. C.(1990). *Body image and physical disability*. In T. F. Cash and T. Pruzinsky (Eds.).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149-169.
- Suk, M. (200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religious factors to psychological adaptation to those physically disabled accidents or diseases : Focusing on christi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ung, J. (1996). *A study on the perceived stigma and coping orientations of discharged psychiatric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999). *Pyojungugeo-daesajeon*. Doosan, Seoul.
- Yang, M., & Lim, E. (2004). The effect of class 'Moderan society and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o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 the disabled. *J Special Edu: Theory & Practice*, 5(3), 203-223
- Yoon, Y. (2005).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Noncongenital-spinal cord injured pers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Yongin.
- Yoo, W. (2007).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s with people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vel of Perceived Stigma Towards Physically Disabled Between Physically Disabled and Non-disabled

Jung, Miyeon¹⁾ · So, Heeyoung²⁾

1)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s were to explore and compare the level of perceived stigma toward physically disabled, and to find factors related with the perceived stigma.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July to September 2007.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92 physically disabled and 294 non-disabled living in Daejeon, Korea. Thes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2.0 by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OVA. **Result:** The perceived stigma towards physically disabled of the physically disabled was higher than non-disabled's. The physically disabled stigmatized themselves in all the subcategories of the perceived stigma. The physically disabled perceived the stigma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pouses, economic status, educational level, comorbidity and impairment sites. The non-disabled's perceived stigma was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existence of spouses, job and economic status. Non-disabled's stigma towards physically disabled was not different by experiences related with physically disabled. **Conclusion:** For reducing the perceived stigma,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especially for physically disabled, and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define related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might be a standard to evaluate effects of nursing interventions for decreasing the stigma.

Key words : Physically disabled, Stigmatiz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ung, Miyeon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6, Munwha-dong, Jung-gu, Daejeon 301-747, Korea
Tel: 82-42-580-8321 E-mail: myzoazoa@hanmail.net